

# 무하마드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그는 누구인가?

이슬람의 선지자  
전기 및 가르침  
서양 사상가의 역사

이슬람의 선지자  
전기 및 가르침  
서양 사상가의 역사

# MUHAMM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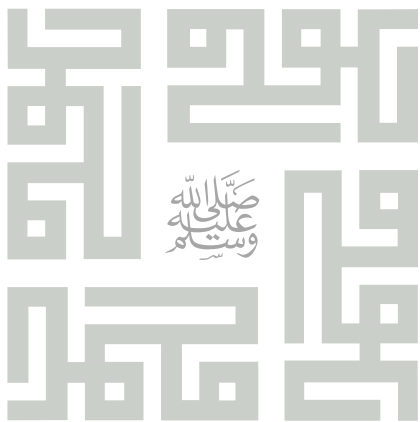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보냈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안비야)장 107절

# 무함마드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그는 누구입니까?

이슬람의 선지자  
약력 및 증명서



초판



# MUHAMMAD WHO IS HE?

Copyright © Osoul Global Center, 2017

이 책의 저작권자는 위와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도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다음의 이메일을 통해 주십시오.

[osoul@rabwah.com](mailto:osoul@rabwah.com)

[muhammadpocketguide@gmail.com](mailto:muhammadpocketguide@gmail.com)

[www.guidetoislam.com](http://www.guidetoislam.com)

[jmbooks@hanmail.net](mailto:jmbooks@hanmail.net)



ISBN: 978 - 603 - 8229 - 05 - 7

L.D. No.: 1439 / 636

[www.guidetoislam.com](http://www.guidetoislam.com)

# 목차

- |              |    |
|--------------|----|
| 1. 생애        | 7  |
| 2. 품성        | 27 |
| 3. 그의 가르침    | 32 |
| 4. 이슬람교에 대하여 | 42 |
| 5. 헌사        | 57 |
| 참고문헌         | 66 |

알-누르 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우수울 글로벌 센터(Osoul Global Center)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분의 교우들과 교우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믿고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전세계에 정의와 자비와 안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분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진실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꾸란 구절에 언급되었듯이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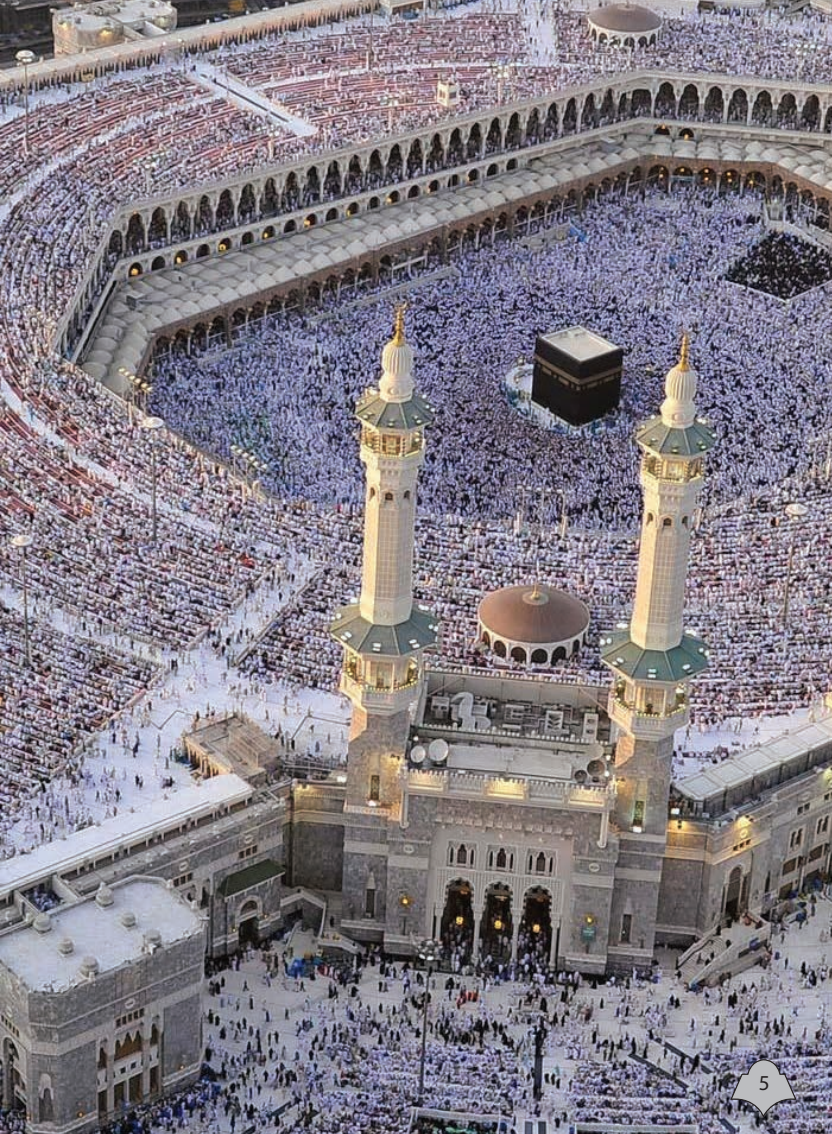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보낸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장 107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수울 글로벌 센터(Osoul Global Center)









이것은 조형 미술 방식으로 쓰인 아랍어로서 “무함마드”란 단어이다. 윗부분은 돔이 있는 이슬람성원 모양이다.

돔(모양)은 “무함마드”란 단어의 “ㅎ” 글자이다. 이슬람성원 모양의 아랫부분에는 “라수-롤라 **ﷲ**” 즉, “하나님의 사도”라는 문장이 쓰여 있다.

또 다른 아랍어 서예 방식으로 쓰인 “무함마드”라는 단어가 육각형에 6번 표현되었다.

쿠웨이트 출신 서예가 파르드 알-알리의 작품

아랍어로 “무함마드”란 “칭찬받은 자”를 뜻한다.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관행에 대해 극찬한다. 실로, 그분은 끊임없는 극찬을 받을 만한 분이다.



# 생애

## 연보

이름	무함마드SAW
아버지 이름	압둘 무말립의 아들 '압둘라' (그의 혈통은 예언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문	바누 하심에 속함 (바누 하심: 아라비아반도의 유명한 귀족 쿠라이쉬(Quraish) 부족의 한 일가)
출생	대략 서기 570년 4월 20일-22일 <sup>1</sup>
출생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사망	서기 632년 6월 6일 (63세를 일기로 타계)
매장지	메디나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400km)



## 어린 시절, 청년기

출생 ~ 2세	외아들이자 유복자로 태어남 베두인 족의 전통에 따라 유목민의 유모 「할리마」의 보살핌으로 성장
2 ~ 6세	어머니 「아미나」가 576년에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음
6 ~ 8세	조부 「압둘 무탈립(Abdul Muttalib)」 밑에서 성장
8 ~ 25세	10명의 자녀를 둔 숙부 「아부 탈립(Abu Talib)」 밑에서 성장

### 교육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으며 교육은 커녕 배운 사람과 함께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메카에서만 살았고 다른 문화, 문명을 탐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꾸란을 썼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꾸란을 썼거나 꾸란의 저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한 글자라도 빠뜨리거나 추가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꾸란의 언어는 문맹이었던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꾸란은 예언자의 말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다. 예언자의 삶의 방식과 언행 그리고 꾸란의 해석 등을 “순나(Sunnah: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관행)”라고 한다.

예언자의 순나는 꾸란과 함께 이슬람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으로, 정직하고 신앙심 깊은 자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왔다.

## 생전 활동

어린 시절 ~ 20대 중반	양치기의 무역. 숙부로부터 무역을 배워 대상이 됨. 숙부 아부 딸립과 함께 12살 때 최초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교역 여행길에 동반.
20대 중반 ~ 40세	메카의 거상이었던 「카디자(Khadijah)」의 무역 대리인으로 활약.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얏-싸디끄 알-아민”, 즉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정직함과 고상한 인품 때문이었다.
40 ~ 63세	40세에 이르렀을 때 (서기 610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자임을 자각. 그 후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의 유일성과 사회정의와 평화, 조화와 안녕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꾸란)을 가르쳤다.



## 결혼

25년 동안 오직 한 여자와 결혼생활: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아사드 가문의 쿠와이리드(Khuwaylid)의 딸 카디자와 결혼했다.

카디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미망인이었고 무함마드<sup>SAW</sup>는 카디자의 고용인이었다. 카디자는 2년 간 무함마드<sup>SAW</sup>를 지켜보며 정직과 신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카디자는 제3자를 통해 무함마드<sup>SAW</sup>에게 청혼을 했다.

행복한 결혼생활: 카디자의 나이는 무함마드<sup>SAW</sup>보다 15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슷한 사회층에 속해 있었다.

그들 사이의 나이 차이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25년 동안 성실한 남편으로 그녀 곁에 있었고 카디자 또한 그를 성심성의껏 내조하였다. 카디자는 619년에 65세를 일기로 사망했고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후에 재혼했다.

여섯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남편: 무함마드와 카디자는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갔고 그들 사이에 딸 넷(자이납 Zaynab, 루꾸이아 Ruqayya, 움쿨숨 UmKulthoum, 파티마 Fatima)과 아들 둘(알-까심 Al-Qassim, 압둘라 Abdullah)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두 아들을 어린 나이(알-까심은 3세, 압둘라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카디자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충신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녀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듯 그녀(카디자)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은 ‘카디자’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는 4세)에 잃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자청하고 자신의 옷을 손수 바느질하고 아이를 돌보았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자녀들, 부인들의 일부, 친척과 교우 일부는 메디나, 예언자의 성원 옆에 있는 바끼(Baqee)묘지에 안치되어 있음.



메카의 알-마알라(Al-Ma'ala)묘지  
예언자의 부인, 카디자의 묘소

## 23년 만에 완성한 임무

### 610년

계시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음으로<sup>2</sup> 예언자직을 부여받아 이슬람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강한 신앙과 헌신 그리고 정직을 필요로 했다.



### 610 - 612년

핵심 무슬림 형성: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가족과 친구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예언자직을 부여 받은 첫 3년 간 130여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이슬람 전파에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이들 핵심 무슬림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 613 - 615년

무함마드<sup>SAW</sup>의 전도에 대한 반발: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와 그의 교우들은 공개적으로 이슬람 전도를 시작했다.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며 예언자를 시인, 점쟁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불렀다.

**메카 족장들의 유혹과 협박:** 메카 족장들은 무함마드<sub>SAW</sub>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 유혹(재산, 인정 받는 계급, 여자 등)을, 때로는 협박까지 했다. 또한 사람들이 무함마드<sub>SAW</sub>의 말을 듣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무슬림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재산도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으며 불신자들은 무슬림에게 고문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도 했다. 100 명 가량의 무슬림은 메카를 떠나 이웃한 기독교 국가 아비시니아(현 제의 에티오피아)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무함마드는 그의 교우 중 일부를 아비시니아로 보냄:**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신앙의 집회 장소이자 교육 장소였던 아르قام(Arqam)의 집에서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에 이슬람의 도덕과 가치, 책임과 헌신을 불어넣었다.

그는 교우들이 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독교 왕이 통치하는 아비시니아로 피난하도록 했다.



**영향력있는 두 명의 남자가 이슬람에 입교하다:** 장사(壯士)이자 존경받는 메카 출신 두 사람, 우마르 본 알-카타브(Omar Bin Al-Khattab)와 함자 본 압둘 무딸립(무함마드<sub>SAW</sub>의 삼촌)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 일은 무슬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함자는 625년에 우후드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지지자였다. 우마르는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사망 후 3년 뒤 두 번째 칼리파가 되어 이슬람국가를 11년 동안 통치하였다.



## 616- 618년

**거부 당하는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그의 추종자들을 강제로 제한 구역 내에서만 살게 하고, 그들에게만 식량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그의 추종자들은 큰 고난을 겪었으며 그들의 인내심과 신앙, 진리를 향한 헌신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 619- 620년

**슬픔의 해:** 메카 족장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지쳐 결국 박해는 점차 약해져 갔고 식량 금지령도 폐지되었다. 같은 해에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아내 카디자와 삼촌 아부 탈립이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메카에서 희망을 잃고 메카 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타이프(Ta'if)로 갔지만 적의에 부딪혔다.<sup>3</sup> 뿐만 아니라 그는 20개 이상의 아랍 부족을 만나 그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 620- 622년

**희망의 빛:**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성지순례 기간에 야스립(Yathrib; 메카의 북쪽으로 약 450km 거리, 현재의 메디나)에서 온 여섯 명에게 이슬람을 소개했다.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야스립에 돌아가서 그들의 부족과 다른 부족사람에게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만나기를 권했다. 권유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해 성지순례 때 메카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 새로운 무슬림들의 맹세

야스립 출신 여섯 명은 다음 해(621년)에 다른 여섯 명과 함께 메카로 갔다.<sup>4</sup>

그들은 무함마드<sup>SAW</sup>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 (1)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
- (2) 도둑질하지 않는다
- (3) 간통하지 않는다
- (4) 살해하지 않는다
- (5)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
- (6)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불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야스립으로 돌아가 족장들과 부족사람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리하여 다음해(622년) 메카 성지순례 때는 70명의 남성들과 2명의 여성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앞에서 맹세했다.

아까바(Aqaba) 또는 알-바야(맹약) 이슬람성원

메카의 북쪽 450km에 새로운 무슬림공동체 구성: 야스립 주요 두 부족(이우스(Aws) 부족, 하즈라즈(Khazraj) 부족)의 족장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 후 그들의 부족사람들도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요청했다.

## 622년

메카 족장들의 예언자 무함마드SAW 살해음모와 야스립(메디나)으로의 이주: 메카의 모든 상황은 악화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카의 무슬림들에게<sup>5</sup> 야스립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그들과 함께 예언자 무함마드SAW도 622년 9월에 야스립으로 이주하였다.<sup>6</sup>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이주는 이슬람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야스립에서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탄생했으며, 새롭고 빛나는 정의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 623-624년

야스립 최고 수장이 되다: 야스립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도시였다. 2개의 주요 아랍 부족과 3개의 작은 유대 부족이 살던 야스립에는 아랍인이 유대인보다 많았으며 통치권도 행사하고 있었다.

야스립 사람 대부분의 합의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평화롭게 야스립의 수장이 되었다.



**야스립의 이름을 바꾸다:** “메디나”는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지은 야스립의 새로운 이름이다. 야스립은 메카 무슬림들의 이주 후,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조국이 되었다.

야스립에 거주하는 유대인 부족들과 이슬람을 선택하지 않은 아랍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스립을 ‘이슬람의 도시’로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에 야스립을 “알-메디나” 즉, 모든 거주자가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도시”라고 이름 지었다.



#### 메디나에서 평화와 인권을 세우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메디나 사람들에게 했던 첫 공개 연설에서 사회적 조화와 통합의 증진을 함축적으로 전했다.

“오,사람들이여!너희상호간에이슬람식인사를나누도록하고가난한 사람에게음식을제공하며다른이가잠자는시간에하나님께예배드리도록하라.그러면너희가하나님을흡족하게하고천국에갈것이니라.”

(Ibn Majah, 4331) and (Tirmidhi, 5842)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위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했다.



623-624년

메디나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최초의 인권' & '자유조약' 체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언자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 대부분이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메디나의 수장으로) 모든 아랍인과 유대인 부족이 합의한 “인권과 자유의 헌법과 헌장”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랍인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또한, 이 조약은 메디나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유, 안정, 정의를 보장하였다. 또한 외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와 안전이, 각종 죄와 비도덕적 행위의 철폐와 정의가 마련되었다.

비르르 소재지

## 624년

### 불가피한 바드르(Badr) 전투: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자, 메카 족장들은 무슬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부 수피얀(Abu-Sufyan)이 이끄는 무역 대상이 메디나 근처를 지나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무슬림은 메카에서 빼앗긴 재산에 대한 대가로 무역 대상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313 명의 무슬림들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

무슬림들의 공격 정보를 입수한 아부 수피얀은 이동경로를 바꾸었고 메카인들도 950 명으로 군대를 구성하여 무슬림 군대와 싸우도록 했다. 무슬림 군대는 장비뿐만 아니라 전투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메카 족장들에 대항한 그 첫 전투에서 무슬림들은 빛나는 완승을 거두었고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메카의 족장 일부는 전사했다.



## 625년

메카의 족장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와 그의 교우들을 공격한 우후드(Uhud) 전투: 메카 족장들과 일부 아랍 부족이 바드르 전투에 대한 보복과 아라비아반도 주인의 자리를 잃을 수 있음에 우려해 3,000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 북쪽 우후드 산에서 총공격을 가해왔다.



우후드 소재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무슬림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했고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은 반면,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사랑하는 삼촌 함자와 일부 교우가 전사했다.



우후드 묘지에 있는 우후드 전투의 순교자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 626년

메카와 다른 부족 연합군이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교우들을 공격한 참호 전투: 이전 전투에서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를 죽이지 못했기에 메카 족장들은 일부 아랍 부족, 유대인 부족과 연대해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할 계획을 세운다.

10,000 명이 넘는 군대가 메디나를 향해 진격해왔고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페르시아인 '살만(Salman)'의 충고에 따라 방어막으로 메디나의 북쪽에 (4.6m 넓이 5.5km 길이)참호를 파기로 결정한다.

한 달 넘게 무슬림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자, 이교도 군대는 참을성을 잃어갔고 점차 동맹군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부 갈등과 혹독한 기상 상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막사를 거두고 군대를 철수했다. 이는 이슬람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이후 메디나는 침략 당하지 않았다.

## 627년

“후다이비야(Hudaybiya) 협정”, 10년간 휴전:

참호 전투 1년 후에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평화를 위해 우므라(Umrah, 소순례. 메카에 있는 카아바를 방문하고 종교 의식을 행함)를 계획한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메카를 방문하는 것은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였고 이는 메카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1,400명의 민간인들과 함께 메디나에서 메카로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다.

10년간  
휴전

여러 협상 후, 메카 족장들과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 사이에 10년 간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와 교우들은 다음 해(628년)에 메카를 방문한다는 조건으로 메디나로 돌아갔다. 많은 무슬림들은 협정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슬림들보다 메카 사람들 측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이 협정을 승리로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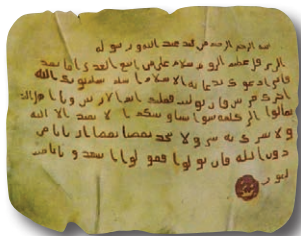
### 628- 629년

휴전 기간 동안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라비아 안팎에 전달: 휴전은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

에게 어떤 방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이슬람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다른 아랍 부족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왕이나 통치자

그리고 페르시아, 비잔틴, 이집트 같은 초강대국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서신을 보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화의 시기에 많은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 630년

‘평화롭게’ 메카를 정복하다: 약 2년 뒤 메카인들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무슬림들과 동맹을 맺은 부족을 공격하여 20명을 살해했다.

그 후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했다. 이는 정복 역사상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메카의 정복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무슬림군은 메카에 입성하기 전, 메카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무슬림군대가 메카로 들어가자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메카인에게 하나님의 유일함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어졌음을 연설했다.



그런 후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자비로운 형제이자 자비로운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오직 선만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범적인 관대함:**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지난 21년 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슬람의 진리를 비웃었던 메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가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소.” 그는 그들 모두를 용서함으로써 전 인류와 모든 세대에 가장 완벽한 관용과 아량의 본보기를 보였다. 이 같은 관대함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한 이유이다.

(Sunan Al-Bayhaqi, 9/118, 18342, 18343)

## 630 - 631년

**아랍부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임:** 평화로운 메카 정복 후, 아라비아 전역에서 대표단이 찾아와 이슬람을 배우게 되었다. 대다수 아랍부족은 서둘러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와진(Hawazen) 부족은 자신들의 세력을 믿고 저항하였으나 후나인(Hunayn) 전투에서 패배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교우들을 아라비아반도 여러 지역에 이슬람 선생으로 파견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메카로 들어간 주요 목적은 카아바를 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는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머리 숙여 숭배해온 거짓 우상들을 모두 부수었다. 마침내 카아바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기 위한 순수한 장소가 되었다.

##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고별연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임무는 완성되어 그의 사명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성지순례를 수행하며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순례객 앞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다. 설교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한 믿음, 생명의 신성함, 사유 재산의 소중함, 인종 평등, 공정성의 원칙, 여성의 권리 및 도덕성 등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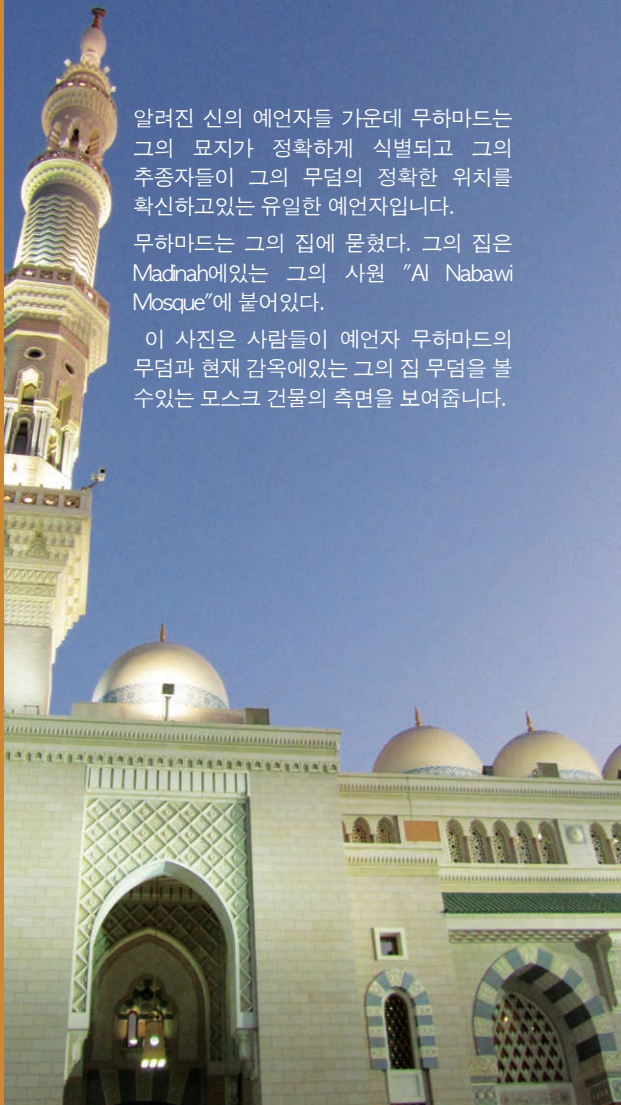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메디나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에게는 약간의 소지품만 남아 있었다. 세상을 전부 가졌음에도 재산은 1 디나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영혼은 마치 처음 전해졌을 때 처럼 오늘날 아직도 또렷하게 살아 있으며, 세계 수십억 명이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임무가 이룬 기적과 아름답게 성취된 그의 목표를 증언하고 있다.

# 성 품

알려진 신의 예언자들 가운데 무하마드는 그의 묘지가 정확하게 식별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확신하고있는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무하마드는 그의 집에 묻혔다. 그의 집은 Madinah에있는 그의 사원 "Al Nabawi Mosque"에 붙어있다.

이 사진은 사람들이 예언자 무하마드의 무덤과 현재 감옥에있는 그의 집 무덤을 볼 수있는 모스크 건물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품성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가족들과 교우들에 의해 그분에 대한 묘사가 다소 생생히 기록되었기에 역사적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거의 모든 것이 후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이다.

### 외모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아랍인으로서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였으며 윤기가 흐르는 밝은 혈색이었다. 키는 평균보다 조금 더 컸으며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다. 그의 배는 가슴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발걸음은 시원스러웠고 걸을 때는 마치 아래로 내려 걷는 것 같았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교우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분은 잘생긴 얼굴에 이마는 넓었고 코는 곧았습니다. 검정색 눈동자에 촘촘하고 긴 속눈썹, 가지런한 치아와 상냥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의 교우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보름밤의 밝은 달처럼 빛났다고 표현했다. 그는 큰소리로 웃지 않았다. 그의 웃음은 대부분이 미소였다. 미소 지을 때는 하얀색 우박과 같은 치아가 드러났다. 항상 유쾌하였고 상대방은 그에게서 친밀감을 느꼈다.





## 성격

한결같은 쾌활함과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녔으며 결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거나 지나친 칭찬을 하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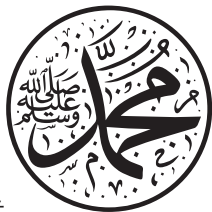
## 말투

쓸데없는 말은 피했으며 문맥은 올바르고 명확했으며 불필요한 말이나 반복되는 말이 없었다. 적은 단어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문장을 구사하였다. 표현력이 완벽했기에 과도한 말이나 비정상적으로 생략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중요한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몸짓으로 세 번이나 반복하곤 하였으며 말을 할 경우 그 말로써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말을 하였다. 그가 교우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비록 그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올바른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말다툼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주변에 집한 채를, 그리고 비록 그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중앙에 집한 채를, 그리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집한 채를 보증하노라.” (Sahih Abu Dawood, 4974/4800)

## 감정



불같은 성격을 갖지 않았으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현세의 일이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특히 자신의 권리추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단호한 태도로 크게 화를 냈다. 또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도 화를 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여성이나 아랫사람에게 소리를 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항상 용서를 택했다.

## 인간관계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였고 상대가 손을 빼내지 않는 한 자신의 손을 먼저 빼내지 않았다.

누가 그와 사귀거나 함께 한다면 금세 친해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친절함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옆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으며 무시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 바라보았다. 만일 누군가 예언자를 부르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까지 그 방향으로 향했다.

모임에 참석할 때면 모임이 형성된 바로 그 장소에 앉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각각의 사람에게 걸맞은 배려를 하였기에,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더 배려 받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한 곳을 지정하여 앉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곳만 지정하여 앉는 행위를 금하였다.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했으며 신앙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말을 끊는 법이 없었으며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며 기다렸다.



## 생활양식

낭비도 하지 않고 인색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것에서 적당하였다. 음식의 맛에 대해 불평하지도 크게 칭찬하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을 셋으로 나누곤 하였다. 즉, 삼분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삼분의 일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삼분의 일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바닥을 닦는 일이나 옷과 신발을 수선하는 일 그리고 염소 젖을 짜는 등등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지나치지 않게 옷을 잘 입고 향수를 발랐다.

새벽예배 후 성원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꾸란을 읽고 하나님을 염원하였다. 또한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자신과 그의 가족이 회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를 모으는 임무를 주지 않았다.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살았으며 집의 천장은 대추야자 나무 잎과 낙타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압둘라 본 압바스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말 씀하기를,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나그네일 뿐 나도 세상도 여기에 (계속) 없는데, 나에게 혹은 세상에 계속 있는 것이 무엇인가?” (2/666- 2788, Musnad Ahmad, Narrated by Abdullah bin Abbas).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타고 다니던 하얀 노새 한 마리 그리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 남겨 두었던 조그마한 땅을 제외하고는 돈이나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집  
(기록에 의한 상상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성원  
(기록에 의한 상상도)

# 그의 가르침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말씀하기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하는 것은 마치 건물의  
 벽돌이 서로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과 같으니라.”  
 알 부카 하리 (481 명)와 무슬림 (2585 명)함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세 개의 선을 바닥에 그은 후  
 선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은 인간이고 (그 옆에 있는) 저것은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선이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은 인간의) 요구이니라. 인간이 자신의  
 또 다른 바람을 이루려고 애쓰는 동안 결국 그에게 가장  
 가까운 선(죽음)이 나타나느니라.”

알 부카 하리 (6417)와 이슬람교도 (1671)

## 그의 가르침

시와 지혜의바탕에서 나온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언행은  
 인간 삶의 많은 측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나(Sunnah)’는 꾸란에 이어 무슬림을 위한  
 두 번째의 권위적 지침으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삶의 방식과 언행’을 의미한다.

“너희의 동료(무함마드)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했으며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꾸란 53장 2-3절



“다음 다섯가지 사항이 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라.  
 늙기 전에 젊음을,  
 병들기 전에 건강을,  
 가난이 오기 전에 부유함을,  
 바쁘기 전에 여가 시간을,  
 죽음이 오기 전에 삶을” 알-하킴 (Al-Mustadiq No. 7846 (4/341))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티르미지가 전함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과 (선을 행하기 위한) 여가 시간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6049



“부러움의 대상은 단지 두 사람의 경우밖에 없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고 그 재물을 명분에 맞게 지출하기 위한 권한을 받은 자이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자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73/15



“(종교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편하고 쉽도록 하여 줄지니, 그것으로서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며 기쁜 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부카리가 전함 69/11



“상거래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를 취소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니라. 서로가 사실만을 말하고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들의 거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거래에 있을 축복은 사라질 것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2082/22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부카리가전함 13/7



“자선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니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두 손으로 일하여 얻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면 되느니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SAW가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SAW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SAW가 말씀하기를,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도 자선이니라.’”

부카리가전함 1445/30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의 행위들은 끝나느니라.

그 세 가지는 그가 생전에 행한 자선과 유익한 지식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훌륭한 자손이니라.”

무슬림, 티르미, 나싸이가나레이션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행을 저지른 후에는  
선행을 하여 그 선행이 악행을 씻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티르미다가전함 1987&아흐마드가전함 5/153



“선행은 훌륭한 행위이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것은 죄이니라.”

무슬림이전함 15/2553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Bukhaari, 5785)와 (이슬람교도, 4853)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좋은~~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침묵하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이웃에게 관대하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손님에게 관대하라.”

부카리가전함 6018&무슬림이전함 74-47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니 너희 중 누구든 믿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너희들 상호간에 이슬람식 인사(쌀람)를 나누도록 하라.” 이슬람교도 54



“만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믿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슬람교도 54



“누가 형제(자매)의 고통을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 심판의 날에 그의 고통 중 하나를 덜어주시는 것이니라. 그가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그녀)를 도와주실 것이니라.” 이슬람교도 2699



“(무슬림) 형제(자매)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선행이라도 작게 생각하지 말라.” 2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는자)가 먼저 인사를 할 것이다.” 3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라.”

이슬람교도 2699

## 여성의 권리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시민권이 없었다. 거친 사막에 거주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유목민들에게 딸이란 연약하지만 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순결이라도 잃게 되면 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따라서 갓 태어난 여아들을 생매장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성(性)차별은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아이들을 성별로서 차별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의 교우들에게 아이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함을 강조했다. 사실상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말씀하기를,

“여성은 마치 남성의 한 부분과 같으니라.” (Tirmithi, 1/154, 113)

이슬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가진다: 이슬람 이전에 여성은 상속권을 갖지 못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관습을 폐지하여 여성도 남성처럼 상속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

예술적 대칭으로 쓰인 “무함마드”라는 이름어 단어. 원래 이 단어는 와 같은 형태이다. “무함마드”라는 단어의 첫 부분에 “M”과 “H” 글자와 마지막 부분에 “M”과 “D” 글자는 서로 대칭을 이룬다.

## 어머니는 깊은 존경의 대상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자궁 안에서, 품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으로 보호한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에게 와서 말했다. “사람들 중 누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sub>SAW</sub>가 말 씀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가 다시 묻기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sub>SAW</sub>가 답하기를, “그 다음도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 남자가 계속 물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sub>SAW</sub>가 대답하기를, “그 다음도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 남자는 다시 물어보았다. “그 다음은 누구 입니까?” 예언자<sub>SAW</sub>가 대답하기를, “그 다음은 당신의 아버지이다.”<sup>2</sup>



이슬람학자들은 위의 하디스에 관하여 어머니는 (1)임신, (2)출산, (3)모유수유 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겪으므로 위대한 존재라고 해석한다.

##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권고하길,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아내의 성품들 중 한 가지를 싫어한다면 그녀의 다른 성품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Tirmithi, 6/188, 3895)

## 자유, 정의, 보호

이슬람에서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세상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로 그것을 믿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꾸란 구절들을 암송했다.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지상에 있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뇨?”

꾸란 10장 99절

“종교는 강요받아서서는 아니 되니라.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꾸란 2장 256절

### 평등과 윤리

이슬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에 대한 우열의 기준은 훌륭한 품성과 신앙심의 정도에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sup>1</sup>

“너희들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인류 모두가 아담 한 사람의 자손이니라.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느니라.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우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느니라. (경외심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한다)” (Musnad Ahmad 10/5586, 23972)

##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환경’에 대한 가르침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환경 보호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를 통제하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피조물에 어떠한 해악도 끼쳐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개발과 낭비 등으로 환경을 해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무슬림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그것으로부터 얻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새들이 먹는다면 그것은 모두 그가 행한 자선이 되느니라.”

무함마드의 말씀  
(Bukhaari, 2320) and  
(Muslim, 1188)

## 이슬람의 메시지

‘이슬람’은 “평화, 복종, 귀의”

이슬람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인도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주에게 귀의함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다른 종교의 모방도 아니고 각 종교의 가르침을 모은 종교도 아니다. 이슬람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에 대한 믿음에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며 낱거나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다(꾸란 112장 1-4절).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에서 믿는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슬람의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믿는 신과 같은 신을 믿는다. 이슬람이 아랍어로 계시되었기에 신(창조주)의 이름은 “알라(ALLAH)”다. 한국어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창조주의 속성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낸다. 99개의 아름다운

아랍어	히브리어	아랍어
엘라(Elah)	엘로하(Eloha)	엘라하(Elah)



“그분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신 분,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니,  
그분은 왕, 가장 성스러우신 분, 평화의 근원이시며 완벽하신 분,  
신앙과 안전을 부여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보호자,  
가장 강하신 분, 신법의 강제자, 지고하신 지존자이시로다.

그들이 (그분께) 견줄 자를 두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모든 형상의 제작자이시로다.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그분께 속하노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로다.”

꾸란 59장 22-24절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암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 “알-리흐만(가장 자비로우신 분)”과 “알-알림(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 다시말해 세상 누구도 하나님보다 자비롭거나 많이 알 수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이슬람:**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에게 질문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이 단순명쾌하게 이슬람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확신을 가져라.”

이슬람 신앙은 극단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이슬람과 평화:** 언어학적으로 아랍어 단어 “이슬람”은 “살라마(salam)”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했다.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살람(salam)” 즉, “평화”를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는 ‘무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무슬림이란 자신의 손(행동)과 말로  
 다른 무슬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슬람에서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에 따를 때 비로소 자신의 평화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슬람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은 무슬림의 인사말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무슬림은 국적과 인종,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인사한다. 먼저 “앗살라무 알라이쿰(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와 알라이쿰 살람(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답한다. 즉,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무슬림 간의 인사는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똑같다. 무슬림은 서로 인사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를 기원하며 그 결과 무슬림 상호간에 사랑과 신뢰, 보호와

안정감이 형성된다.

이슬람 인사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무슬림’인가 ‘무함마드교도’인가? 많은 서양 학자가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며 따라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라는 그릇된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했다. 서구사회에서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종교를 뜻하는 무함마드교(마호멧교)로 그리고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무함마드교도(마호멧교도)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무슬림(muslim)’이란 ‘이슬람 신자’를 뜻하는 아랍어이며, 무슬림은 하나 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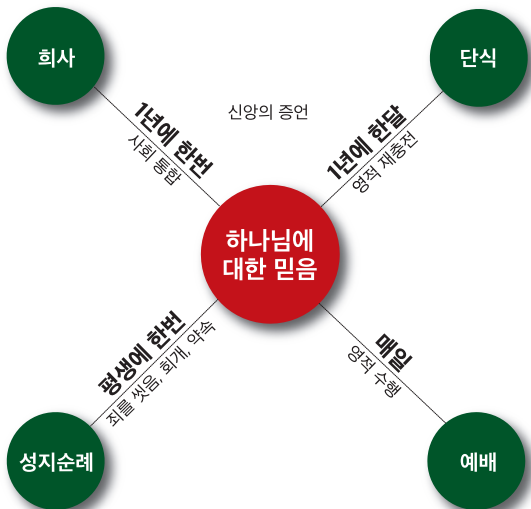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5가지 믿음, 즉 천사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에 대한 믿음,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정명에 대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슬람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무슬림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슬람이라는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5개의 기둥을 떠올려보자. 만약 이 5개의 기둥 중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붕은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해 무슬림이 이 5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약해져 무너지게 된다.

1	신앙의 증언 (샤하-다: Shahadah)	이슬람의 기본 신조. 신앙의 증언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근본이다.
2	예배 (샬라트: Salat)	매일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단식 (싸얌: Siyam)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한다.
4	희사 (자카트: Zakat)	1년에 한 번 가난한 사람에게 희사한다.
5	성지순례 (햏즈: Hajj)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모든 무슬림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성지 메카의 카아바를 순례한다.



## 1. 신앙의 증언(샤하 - 다: Shahadah)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즉, '신은 한 분'임을 인정함을 뜻한다. 이 문장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오직 한 분 이신 창조주만을 숭배할 것이며 그 분이 선택하신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sup>SAW</sup>임을 믿는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다.



무슬림이 되고자 한다면 한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신앙의 증언(샤하 - 다)'을 하면 된다. 즉, "아슈하두 안라 - 일라 - 하 일랄라 -,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 - 룰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 라는 아랍어 문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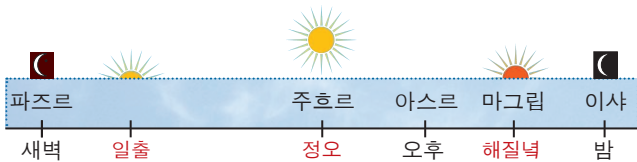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 또한 인정함을 뜻한다.

'신앙의 증언(샤하 - 다)'을 표현한 아랍어 서예 작품. '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라는 의미.

## 2. 창조주와 직접 만남(1:1), 예배(살라트: Salat)

'예배'는 창조주와 믿는 자 사이를 연결하는 고귀하고 중요한 소통이며 창조주께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예배는 꾸란 암송과 함께 특정한 자세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마음과 입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숭배행위이다.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게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꾸란 2장 186절

예배는 신앙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는 육체적 움직임이 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증가시킨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순간은 엎드려 절하는 자세를 갖출 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루 5번의 예배는 하루 24시간 중 채 30분도 소요되지 않는다.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매일 여러 번 음식을 먹는데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듯이 인간의 영혼도 정신적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예배는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무수히 많은 선물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

### 3. 희사(자카트: Zakat)

이슬람에서 희사는 단순히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재물 또한 인간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다. 즉, 내가 가진 부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가난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양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무슬림에게 매년 순수입의 2.5%를 희사하도록 명하셨다.

희사를 하는 사람은 희사를 함으로써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희사를 받는 사람은 부유한 자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불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즉, 희사는 이기적 탐욕과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념의 침투로부터 사회를 건전하게 지키는 수단이다.

### 4. 단식(싸얌: Siyam)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이 시작되어 밤하늘에 초승달이 나타나면 그 밤이 지난 새벽부터 일제히 단식을 시작한다. 매일 새벽(파즈르: fajr)예배 시작 바로 전부터 일몰 때까지 한 달(약 30일)동안 단식한다. 라마단 달 동안 무슬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식과 음료와 성관계를 멀리한다.



단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사항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가! 단식을 통해 무슬림은 굶주리는 사람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지 깨닫게 된다. 단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는 경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단식을 통해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간격은 좁혀지고 관계는 개선되며 그 결과 견고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된다.

단식은 정신을 일깨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오만함을 없애고 겸손과 겸허함을 배우게 하며 자선을 촉구한다. 단식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에 의사들도 추천하는 이상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이슬람 달력	
1	무하람
2	사파르
3	라비올 아우왈
4	라비올 올라
5	주마달 올라
6	주마달 싸니
7	라잡
8	샤으반
9	라마단
10	샤우왈
11	둘-까으다
12	둘-히자

## 5. 성지순례(하즈: Hajj)

성지순례는 이슬람력으로 12월(둘 히자) 8일부터 1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순례를 한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지순례'는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모든 무슬림이 평생에 한 번은 행해야 하는 의무다.



## 한 분이신 하나님, 단 하나의 메시지

### 꾸란의 예언자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에 기초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인도할 특별한 존재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예언자를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같은 목적,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 수는 25명이다. 꾸란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인간이자 예언자인 아담이 25번, 노아는 43번, 아브라함은 69번, 모세는 136번, 예수는 25번 등장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말씀하기를, “나와 기존 예언자들과 관계는 누군가가 지은 저택과 같노라. 그는 저택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완벽히 하였지만, 구석의 벽돌 하나만을 남겨두고 채우지 않았노라.

사람들은 저택 주위를 돌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이 부분을 벽돌로 채우면 좋으련만’ 하고 아쉬움을 표하니, 내가 바로 그 벽돌이며, 나는 모든 예언자의 봉인이라.”

부카리가 전함 4734, 4735

표1: 주요 예언자의 생애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시기	기원전 약 1,700 년 경	기원전 약 1,400 년 경	서기 1 - 33	서기 570 - 632
연령	175	120	3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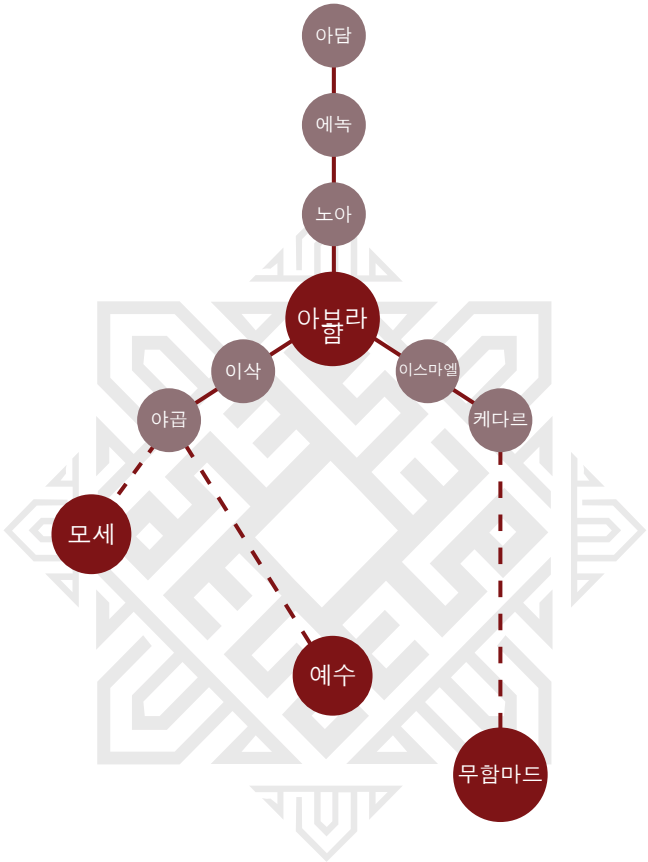
###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와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에서 예언자들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의 선조는 예언자 아브라함의 장남이자 많은 아랍부족들의 아버지인 '이스마엘'이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예언자 즉 야곱, 요셉, 아론과 모세의 선조는 예언자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이다.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은 사람들에게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꾸란에는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며 특히 그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숭고한 마음으로 믿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정직성, 복종과 감사를 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나 그의 믿음은 진실하고 순수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실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예언자 아브라함<sup>AS</sup>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예언자들의 조상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와 예언자 모세<sub>AS</sub>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는 예언자 모세<sub>AS</sub>에 대하여 “나의 형제 모세”라고 찬사를 표하였고 최후 심판의 날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옥좌 한 곳을 잡고 있음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가 메디나에서 유대인이 이슈라 날에 단식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날은 정의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하신 날로서 모세가 이 날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와 예언자 예수<sup>AS</sup>

예언자 무함마드<sup>SAW</sup>가 말씀하기를,

“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라. 그(예수)와 나 사이에 다른 예언자가 오지 않았느니라.

또한 모든 예언자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종교는 하나이니라.”

(Bukhaari, 3285)

꾸란은 ‘예수<sup>AS</sup>’를,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언급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를 성령(가브리엘 천사)으로 하여금 보호토록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보냈다. 꾸란 2장 87절, 3장 45-49절, 4장 171절 참조



나사렛(Nazareth)은 팔레스타인 갈릴리(Gallee) 지방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작은 도시다. 복음서는 이 도시가 마리아의 고향이며 예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언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소재

예언자의 성원(알-마스진 알-나바위)

비고: 이슬람성원과 일체가 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집과 묘지



##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예언자 무함마드SAW

역사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숭고함과 사람들을 향한 인도적 태도를 기록하였다. 그의 부름과 가르침은 우호와 우의를 다지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그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성품을 전혀 갖지 않았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마이클 H. 하트(Michael H. Hart)는 지금까지 실재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아 저술한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무함마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를 창시한\* 자이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자였다. 그의 사후 13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영향력은 깊고도 강하다.”라고 언급한다.

\*이슬람은 인간에 의해 창시된 종교가 아니며 따라서 무함마드SAW는 창시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이다.



“그는 역사상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관점 모두에서 지극히  
성공적이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마이클H. 하트

“무함마드는 무역과 미술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아라비아 남부의 메카에서  
570년에 태어났다.”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무함마드가이슬람에미치는영향은예수와바울이기독교에미치는영향보다더큰것같다.오직종교적측면에서만볼때무함마드는예수만큼인류역사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보인다.”

## 지도자 예언자 무함마드 SAW

프랑스 학자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은 그의 저서 “터키의 역사(History de la Turquie)”에서 예언자 무함마드 SAW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목적의 위대함과 물리적 수단에서의 낮은 의존도, 그리고 놀라운 성과가 인간의 천재성을 판가름하는 세가지 진정한 기준이라면 인류의 근대 역사상 어느 누가 무함마드에 필적할 수 있겠는가?”

“유사이래 어떠한 인간도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그토록 숭고한 목적을 지향한 적이 없다. 이는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이미 초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란 인간과 그의 조물주 사이를 이간하는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물질적이고 왜곡된 우상들이 범람하는 혼돈 속에서 합리적이고 성스러운 신성(神性)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인간도 그토록 거대하고 지속적인 혁명을 달성한 적이 없다.”





라마르틴은 또한

“무함마드는 물질적인 힘에 불과한 무기와 왕조를 움직이지 않았고 사상, 신념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움직였다. 글자 하나 하나가 법이 되어 버린 단 한 권의 책을 토대로, 그는 모든 언어와 인종이 하나가 된 정신적인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덧붙였다.



## 무함마드<sub>SAW</sub>: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이자 종교 문화 논평가인 영국인 '카렌 암스트롱(Karen Amstrong)'이 쓴 "무함마드: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자 (Muhammad a Prophet for Our Time)"란 책에서 그녀는 "우리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을 편견 없이 살펴보고 그의 상당한 업적들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함마드는 전쟁으로 피해를진 아라비아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의 삶은 탐욕과 부당함 그리고 오만함을 향해 끊임 없이 대항하는 것이었다.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에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sub>SAW</sub> 묘소(왼쪽에서 첫 번째) 그 옆에는 첫 번째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와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르의 무덤이 있다.



## 존 아데어

John Adair

영국의 리더십 전문가.

“무함마드의 지도력(The Leadership of Muhammad)”의 저자.

이탈리아의 토리노시에 소재한 유엔 참모양성학교 리더십과 학과장.

“이슬람사상에서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들은 고귀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선견지명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에게 바쳤습니다. 이 장들을 읽어볼 때 무함마드가 이러한 이상에 얼마나 알맞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에서 수없이 드러난 이상적인 리더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성격과 실행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와 똑같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윌리엄 몽고메리 와트

William Montgomery W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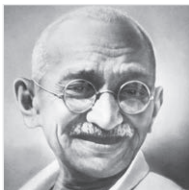
(1909-2006) 스코틀랜드 출신 사학자이자 에든버러 대학교

아랍어과, 이슬람학과 명예교수.

“무함마드의 메카 (Muhammad at Mecca)”의 저자.

“무함마드의 메카”, 옥스퍼드, 1953년, 52쪽에서

“믿음의 대가로 그 어떠한 박해도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와, 그를 믿고 따르던 자들의 높은 인격, 그가 최종적으로 거둔 위대한 결과물, 이 모든 것은 그(예언자 무함마드)가 정직하고 성실한 자였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 중 무함마드 만큼 서구에서 그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1869- 1948)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 때의 삶의 책략 안에 이슬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칼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단순함, 겸손하여 항상 표면에 나서지 않는 것, 약속을 꼼꼼하게 지키는 태도, 그의 교우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 용맹, 하나님과 책임이 있는 임무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傳記) (제) 2권의 마지막 쪽을 넘겼을 때 나는 이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더 이상 읽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아 슬펐습니다.”



## 알퐁스 드 라마르틴

Alphonse de Lamartine

(1790- 1869)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작가, 정치가.

“터키의 역사(Histoire De La Turquie)”의 저자.

터키의 역사 제2권 276-277쪽에서

“사색가, 웅변가, 지도자, 법률가, 전사, 사상의 정복자, 이성적 신조, 우상 없는 숭배 주창자, 그분은 무함마드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함마드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 윌리엄 듀런트

William Durant

(1885-1981) 미국인 사학자, 철학자.

“문명 이야기(The Story of Civilization)”의 저자.

“문명 이야기” 제4권 제4장 25쪽에서

“그(무함마드)의 “칭찬받은 자” 또는 “칭찬할 가치를 지닌 자”라는 뜻의 이름은 성경의 일부분에 언급된 “도래가 예견된 사람”이란 구절과 유사합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쓸 줄 몰라 서기들이 대신하였습니다. 그가 문맹이라는 사실은 아랍어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창한 책(꾸란)을 구성하는 것(그에게 계시된 꾸란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한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드물게 이를 수 있는 국민을 관리하는 능력의 소유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석: 서기(書記)란 문서나 기록 따위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함. 윌리엄 듀런트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꾸란을 “구성(composing)”하였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꾸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한 성서이기 때문이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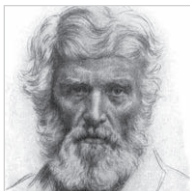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 극작가 및 대시인.

Noten und Abhandlungen zum Weststichen Dvan,

WA I, 7, 32쪽에서

“그(무함마드)는 시인이 아니라 예언자이기 때문에 꾸란은 신의 율법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꾸란은 교육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책이 아니다.”



## 토머스 칼라일

Thomas Carlyle

(1795-1881) 스코틀랜드 출신 사학자이자 철학자.

“영웅숭배론(Heroes and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의 저자.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서로 다투는 부족들을 하나로 융합시켰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베두인족 Bedouins: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사이에서 방황하다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문명화된 국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주석: 토머스 칼라일은 그의 저서에서 '예언자로 나타난 영웅'이라는 장의 제목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특별한 자리를 부여했다.



## 레지널드 보스워스 스미스 목사

Reginald Bosworth Smith

(1839-1908) 영국 출신 교사이자 저자.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주의(Mohammad and Mohammedanism)”의 저자.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주의, 런던, 1874년, 92쪽에서

“그는 그 안에 시저와 교황의 성격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황으로서의 허례허식이 없는 교황이었으며, 시저의 전설이 없는 시저였습니다. 뛰어난 군대 없이도, 호위병 한 명 없이도, 궁전 한 채 없이도, 고정 수익 없이도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의 질서에 의해 올바르게 통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그는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권력의 도구 없이도 권력의 지지 없이도 모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의 화려함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삶에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모두, 언제나 소박함이 함께 했습니다.”



## 레프 톨스토이

Leo Tolstoy

(1828- 1910)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소설가.

“전쟁과 평화”의 저자.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회구조를 깊이 개선하는 훌륭한 개혁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노력은 한 공동체를 진리의 빛에 이르게 하였고 그들을 더욱 평온과 평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살생을 방지했는데 이는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발전과 문명의 문을 널리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대단한 행위입니다. 그는 모든 감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리스 뷔까이유

Maurice Bucaille

(1920- 1998) 프랑스 출신 의학박사이자 위장병학 전문가.

이집트학 프랑스 연합회 회원,

“성경과 꾸란과 과학(The Bible, The Qur'an and Science)”의 저자.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理性)의 능력을 베풀어주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기대됩니다. 그 당시 지식 수준을 고려해볼 때 무함마드가 생존해 있던 시절 누군가가 이러한 진술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과학은 꾸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이 둘 사이에 협정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참고문헌

Abdul Ghani, M. Ilyas, (2003). The History of Al-Madinah Al-Munawwarah, Rasheed Publishing, KSA

Adair, John, (2010). The Leadership of Muhammad. Kogan Page, UK

Al-Maghluth, Sami, (2008). The Historical Atlas for Prophet Muhammad Life. Obaikan, KSA

Al-Mubarakpuri, Safi-ur-Rahman, (1996). The Sealed Nectar: Biography of the Noble Prophet Muhammad, Darussalam, KSA.

Al-Zayed, Samirah, (1995). The Inclusive Book About Prophet Muhammad's Life, The Scientific Press, First Edition, Syria

Armstrong, Karen, (1992). Muhammad: A Biography of the Prophet. Harper Collins, New York, USA

Armstrong, Karen, (2007). Muhammad: A Prophet for Our Time. Harper Collins, New York, USA

Al-Nawawi, Y.S., (2003). Riyadh Al-Saliheen. Authentic Sayings of Prophet Muhammad, Arabic Cover –Cairo, Egypt

As-Sallaabee, Ali Muhammad, (2008). The noble life of the Prophet, Darussalam, KSA

Bukhari, Mohammad Bin Ismael, (1997). Saheeh Bukhari, Dar Al Afkar, Amman, Jordan

Hammad, Ahmad Zaki (2007). The Gracious Qur'an: A Modern-Phrased Interpretation in English, Lucent Interpretations, IL, USA

Hart, Michael, (1992). 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 Carol Publishing Group. N.J., USA

Islam, Yusuf, (1995). The Life of the Last Prophet, Darussalam, KSA

Ramadan, Tariq, (2009). In the Footsteps of the Prophet: Lessons from the Life of Muhammad, Oxford, UK

Saheeh Int. (2004). The Qur'an English Meanings. Abul-Qassim Publishing –Al Muntada Al-Islami-Jeddah, KSA





لا اله ا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첫 번째로 무함마드를 선택한 것은 어떤 독자에게는 놀라움을, 또 다른 독자에게는 의문이 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종교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 모두 최고의 성공을 이룬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다.”

마이클 H. 하트(Michael H. Hart)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의 저자

(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



[www.guidetoislam.com](http://www.guidetoislam.com)

